

원인론적 관점에서 읽는 디나 이야기

정일승*

1. 들어가는 글

창세기에는 근친상간, 성폭력 등 성(性)과 관련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난다. 창세기 34장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머문 후 고향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겪게 되는 비극적 가족사를 다루고 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형 에서와 재회한 후에 형을 따라 세일로 가지 않고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정착한다. 그 땅에 머무는 동안 야곱의 유일한 딸인 디나는 히위족속 세겜에게 강간을¹⁾ 당하고, 이 일로 디나의 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와 결혼하려고 하는 세겜과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성읍을 약탈한다.

이와 같은 성폭력과 살인 이야기는 고대 및 현대 독자를 막론하고 매우 불편한 이야기일 것이다. 표면적인 이야기의 줄거리는 단순해보여도 창세기 34장의 해석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그 이유는 창세기 34장 본문이 등장 인물의 생각, 행동의 내적 동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사건의 정확성을 매우 절제된 방식으로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모호한 부분, 즉 일정한 ‘간격’(gap)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²⁾ 본문이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침묵함으로써 발생하는 간격은 여러 가지 해석학적 질문들을 이끌어 낸다.

예를 들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간 이유는 무엇인가? 세겜은 디나를 강간한 것인가, 아니면 디나와 세겜의 성관계는 두 사람의 동의하에

* University of Sheffield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건신대학원대학교(舊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조교수. ischung74@gmail.com.

- 1) 『현대인의 성경』, 『개역』 및 『개역개정』은 ‘강간하였다’로, 『표준』은 ‘욕을 보았다’로, 그리고 『공동』은 ‘ 겁탈하였다’로 번역한다.
- 2) 스티른버그(Meir Sternberg)는 문학작품은 독서 과정에서 연결되고 판통되어야 하는 조각들과 파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채워져야만 하는 ‘간격의 체계’(a system of gaps)를 형성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간격’을 저자의 문학적 기교로 이해한다. 참조, Meir Sternberg, *The Poetics of Biblical Narrative: Ideological Literature and the Drama of Reading*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5), 186-187.

이루어진 것인가? 창세기 34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강간인지 아닌지 여부는 창세기 34장 본문 전체를 해석하는 데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디나와 결혼하려고 하는 세겜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디나가 세겜의 집에 머문 것은 자발적이었는가 아니면 강압 때문이었는가? 하나뿐인 딸이 겪은 사건에 대한 야곱의 수동적인 태도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를 위해 종교의식인 할례를 오용해서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살육하고 약탈했던 행위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본문은 과연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가?

위에서 제시한 질문들 외에도 본문이 침묵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은 끝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학적 질문들은 궁극적으로 “창세기 34장의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창세기 34장의 이야기는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31절)라는 질문으로 끝맺음되면서 이야기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독자에게 맡기며 생각의 여지를 남긴다.

창세기 34장의 디나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동안 창세기 34장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접근방법이 있었지만, 최근의 해석적 경향은 성폭력의 피해자인 디나라는 등장인물과 내러티브상에서 디나의 목소리가 침묵된 ‘텍스트의 모호성’(textual ambiguity)에 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디나 이야기에 대해 그 동안 많은 해석이 있었지만, 본 논문은 창세기 34장의 주요 구절에 대한 번역 및 해석을 면밀하게 재고하여, 디나 이야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함의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디나 이야기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과 중요한 논쟁점들을 살펴보고 평가한 후에, 창세기 34장의 주요 구절을 면밀하게 읽어가면서 본문의 의의에 대해 논할 것이다. 창세기 34장은 단순히 야곱 가족에게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만을 전달할 목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다. 언약의 자손들의 혈통의 순수성과 언약 계보의 정결성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상(理想)을 담고 있으며, 훗날 이스라엘 지파의 시조가 되는 시므온과 레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창세기의 전반적인 특징인 원인론(Etiology)적³⁾ 특징을 보여준다. 창세기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원인론적 요소는 디나 이야기의 해석에

3) 개인이나 장소의 이름, 특수한 풍습이나 종족의 기원 및 유래를 설명하는 내용과 그 방식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창세기 28장의 사건은 베엘이라는 지명의 기원을 설명하며, 창세기 32장은 브니엘이라는 지명의 유래 및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 풍습의 기원을 설명한다. 그 외에도 창세기 19장은 모압과 암몬 종족의 기원을 설명한다.

중요한 해석적 단서이다.

2. 디나 이야기 해석의 쟁점들: 디나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 왔는가?

창세기 34장의 해석사를 살펴보면 창세기 34장에 등장하는 여러 등장인물들에 대해 다양하면서도 상반된 해석과 평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랍비 문헌에서는 대체로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초기 유대교의 해석에 의하면 세겔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켰고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은 의로운 것으로 여겨졌다.⁴⁾ 또한, 레위의 제사장직도 이러한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되었다.⁵⁾ 반면에 ‘창세기 랍바’(Genesis Rabbah)는 이 이야기에서 디나에게 일어난 재앙의 원인을 아버지로서 딸을 잘 양육하지 못하고 실패한 야곱에게로 돌린다. 야곱이 디나를 보살피는 것과 그 시대와 장소에 맞게 아버지로서 딸의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해 실패했고, 또한 자만한 탓에 자신의 딸 디나가 무엇을 원했는지에 대해서도 무감각했다고 보았다.⁶⁾ 종교개혁자이자 탁월한 주석가인 칼빈(John Calvin)도 결혼도 안한 디나가 처녀의 몸으로 아버지 집을 벗어난 것부터가 잘못이었고, 또한 딸이 집에 안전하게 머물러 있도록 하지 못하고 딸을 나가게 내버려둔 야곱에게도 아버지로서 책임이 있다고 해석하였다.⁷⁾

현대의 주석가들도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창 34:1) 나간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웬햄(Gordon J. Wenham)을 포함하여 많은 학자들은 여자가 낯선 지역으로 홀로 떠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디나가 경솔하게 행동했다고 본다.⁸⁾ 송병현은 야곱이 딸에게 사람

4) *The Book of Jubilees* 30:6, 23; *Judith* 9:2; *The Covenant of Levi* 6:8-11. *The Covenant of Levi*와 이 사건의 관계에 대해서는 쿠겔(James Kugel)의 연구를 참조하라. James Kugel, “The Story of Dinah in the Testament of Levi”, *Harvard Theological Review* 85 (1992), 1-34.

5) *The Book of Jubilees* 30:18-20.

6) *Genesis Rabbah* 80:1-3. Jacob Neusner, *Confronting Creation: How Judaism Reads Genesis: An Anthology of Genesis Rabbah*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91), 285-286; David W. Cotter, *Genesis*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3), 253에서 재인용.

7) John Calvin, *Genesis*, John King, trans. (Carlisle: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5), 218.

8) Gordon J. Wenham, *Genesis 16-50*, WBC 2 (Dallas: Word, 1994), 310; Bruce K. Waltke, *Genesis: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1), 461; 송병현, 『엑스포지멘터리 창세기』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0), 599.

을 붙여서 그녀를 보호했어야 하며, ‘그 땅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창세기 안에서 부정적인 뜻을 지니고 있음(창 24:3, 37 등)을 지적하면서 창세기 저자도 디나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한다.⁹⁾ 또한, 사르나(Nahum Sarna)는 디나가 ‘나갔다’(נָסָה, 1절)는 표현이 ‘성적 난잡함’을 함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¹⁰⁾ 더 나아가 코터(David W. Cotter)는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Josephus) 등 고대 해석자들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디나의 의도가 이방 여인들과 교제하거나 또는 세겜의 축제에 참가하기 위한 것이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시한다.¹¹⁾

이와 같은 디나에 대한 해석자들의 부정적인 해석은 대체로 본문 자체에 충분한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간 디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세겜 지역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나갔을 수도 있고,¹²⁾ 동성친구가 그리워서 세겜의 여인들을 친구로 사귀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¹³⁾ 또는, 이미 디나가 세겜 여인들과 교제하고 있었고, 친구들을 만나러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¹⁴⁾ 창세기 34장 본문이 기존의 해석자들이 디나를 부정적으로 해석한 것만큼이나 디나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묘사하고 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 본문은 디나의 행동을 단순히 ‘보고’(report)하고 있을 뿐인데 오히려 해석자들이 때로는 단순한 사건 묘사에 대해 필요 이상의 행간 읽기를 통해 과도한 해석과 평가를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여자가 낯선 지역으로 홀로 떠나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과 달리 사실상 디나에게 세겜 지역이 완전히 낯선 지역도 아니었다. 야곱은 그 땅의 일부를 하몰로부터 샀기 때문에 야곱 가족은 이미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¹⁵⁾ 창세기 24장을 보면 리브가도 저녁에 여인들과 함께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과연 디나가 결혼 전에 외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본문이 도덕적 교훈으로 지적하려 했는지는 의문이다. 여성이 집 밖에 나갔다가 강간을 당했다고 해서 집 밖으로 나갔던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9) 송병현, *Ibid.*, 599-600.

10) Nahum M. Sarna, *Genesi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233; Gordon J. Wenham, *Genesis 16-50*, 310.

11) David W. Cotter, *Genesis*, 252-253.

12) Gerhard von Rad, *Genesis*, John H. Marks, trans. (London: SCM Press, 1961), 331.

13) Leon R. Kass, “Regarding Daughters and Sisters: The Rape of Dinah”, *Commentary* 93 (1992), 31.

14) 천사무엘, 『창세기』, 성서주석 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433.

15) 홍경원, “해석의 윤리: 창세기 34장의 디나 이야기 읽기”, 『神學思想』 142 (2008), 17.

둘째, *נָסַף*(나가다)라는 동사를 아카드어와 아람어의 상용어와 비교하여 ‘성적인 난잡함’을 함축한다는 사르나(Nahum Sarna)의 주장은 그의 주석에서 충분한 논리적 근거와 함께 제시되지 않았다. 본문은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디나가 의도적으로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나갔다고 보는 창세기 랍바(Genesis Rabbah)의 해석도¹⁶⁾ 본문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해석이다.

셋째, 이방 여인과의 ‘교제’를 위해 나갔다는 주장은 디나가 그 땅의 여인들을 만나러 갔다는 점에서(1절) 어느 정도 개연성을 찾을 수 있지만, 이방 축제 또는 제의에 참가하기 위해 나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는 본문에 없으므로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최근에는 디나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반박하면서 기존의 전통적 해석과 달리 창세기 34장을 디나라는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성폭력의 피해자인 디나를 옹호하거나 동정하는 다양한 페미니스트적인 해석들이 대두되고 있다. 페미니스트적 해석에서는 강간의 피해자인 디나가 본문에서 침묵하고 있는 이유를 본문의 저자가 갖고 있는 가부장적, 남성중심적 사고에서 찾는다. 물론, 디나를 중심으로 창세기 34장을 해석하는 방식이 페미니스트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예를 들어, 홍경원은 독자반응비평의 시각을 취하면서 창세기 34장 본문이 가지고 있는 모호함은 디나 이야기를 힘없는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읽느냐, 또는 힘 있는 가해자의 편에서 읽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해석을 낳을 수 있지만, 독자가 피해자인 디나의 시각에서 본문을 읽고 그리고 불법적인 폭력으로서의 강간을 지적할 때 윤리적으로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⁷⁾

홍경원이 주장하는 바처럼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 독자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창세기 34장 본문이 약자로서의 여성을 동정하기 위한 본문은 아니며, 디나의 관점에서 읽는 방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본문에 원래 의도된 바와는 거리가 있다. 창세기 34장에서 디나의

16) Jacob Neusner, *Genesis Rabbah: The Judaic Commentary to the Book of Genesis*, vol. 3 (Atlanta: Scholar's Press, 1985), 146. 본문은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말하지만, 미드라쉬에서는 디나가 ‘보여지기 위해’ 나갔다고 본다(Genesis Rabbah 45:5). 해밀턴(Victor P. Hamilton)과 같은 현대 주석가들도 여전히 칼(Qal) 여형의 부정사(Infinitive)가 능동태 또는 수동태로 번역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며(GKC, §114k) 보여지기 위해 나갔다’(went out to be seen)고 수동태로 번역한다. ‘보여지기’ 위해 나갔기 때문에 세겔이 디나를 ‘보게’ 된 것일까? 이러한 수동태형으로의 해석은 디나의 의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데, 능동태로 번역하는 것에 우선하여 굳이 선택해야 할 특별한 근거는 없다.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8-50*,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5), 351; Bruce K. Waltke, *Genesis*, 462. Waltke는 Hamilton의 견해를 그대로 소개한다.

17) 홍경원, “해석의 윤리: 창세기 34장의 디나 이야기 읽기”, 27-28.

관점은 축소되어서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페미니스트 해석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디나의 입장을 고려하며 창세기 34장 이야기를 읽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러한 해석만이 윤리적으로 옳다는 것을 논하기에 앞서 왜 본문이 디나의 관점을 침묵시켰는지를 좀 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윤리적 문제는 현대 독자들의 관심사일 뿐, 본문은 성폭력이나 대량 학살과 같은 사건의 윤리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본문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이데올로기적인 문제이다.

창세기 34장을 창세기의 큰 흐름과 문맥 속에서 해석하는 학자들은 서원이라는 관점에서 창세기 34장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로스(Allen P. Ross)는 창세기 34장의 비극적 사건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벤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으며, 하나님께서 세겜에 정착한 야곱에게 서원을 상기시켜 세겜 정착을 포기하고 벤엘로 가게 하시기 위한 사건이었다고 해석한다.¹⁸⁾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사건의 결과만을 놓고 판단하는 결과론적인 측면이 강하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의 신앙 때문에 그의 딸인 디나를 희생시켰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외에도 지면상 모두 소개할 수 없지만 다양한 관점의 해석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는 이유는 본문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등장인물을 묘사하면서 등장인물의 행동의 동기나, 생각, 그리고 사건의 정황에 대한 평가를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창세기 34장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디나를 주인공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지만, 정작 본문에서 성폭력의 피해자인 디나의 감정, 생각, 목소리가 침묵되면서 디나는 주변인물 또는 배경의 일부처럼 다루어진다.¹⁹⁾ 또한, 이 사건에는 하나님이 전면에서 등장하지 않으며 사건에 대해서도 침묵하신다. 이처럼 본문이 주요 등장인물들의 생각이나 행동의 동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거나 간접적으로 묘사하는 방식은 독자로 하여금 불가피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간격(gap)에 대한 행간 읽기로 이끌게 되며, 그 결과 디나, 세겜,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야곱에 대해 다양하면서도 때로는 상반된 해석을 만들어 낸다.

‘본문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gap)에 대해 해석자가 논리적이고 명쾌한

18) Allen P. Ross, 『창세기』, 강성렬 역, 두란노강해주석시리즈 1 (서울: 두란노, 1988), 182; Laurence A. Turner, *Genesi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147; 천사무엘, 『창세기』, 433.

19) 이와 같이 등장인물이 배경의 일부처럼 다루어지는 방식은 구약 내러티브에서 매우 보편적이다.

대답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 그것이 만약 의도적인 침묵이라면 본문이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내재적 모호함’(intrinsic ambiguity)을 해결하기 위해 본문의 근거 없이 과도하게 ‘간격을 채우려는 시도’(gap-filling)가 오히려 본문의 의미를 왜곡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본문 상의 모호함과 그로 인한 해석상의 쟁점에 대해 설명하되 과도한 행간읽기는 지양하고, 창세기 34장 본문 전체의 관심이 무엇인지 전체적인 함의를 이해하기 위해 단서가 되는 본문의 주요 구절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3. 창세기 34장 번역 및 해석상의 쟁점

3.1. 디나는 ‘레아의 딸’

디나는 ‘그 땅의 딸들’(1절), 야곱이 가나안에 돌아와서 정착했던 세겜 땅의 여자들을 만나러 나간다. 1절에서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디나는 ‘야곱에게서 낳은 레아의 딸’(בְּתוּלָאָה אִשְׁרָאֵל לְדָהָרָה לְיַעֲקֹב)로 소개된다. 통상 구약성서에서 ‘~의 딸’이라는 표현에 아버지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디나가 ‘야곱의 딸’이 아니라 이야기의 전반부에서 ‘레아의 딸’로 소개되는 것은 독특하다. 사실상 디나는 야곱의 여러 자녀들 중에서 유일한 딸이지만 ‘야곱의 딸’이라는 표현 대신 ‘레아의 딸’로 소개되면서 아버지인 야곱보다 어머니인 레아에게 더 가까운 자녀처럼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녀의 딸 디나 역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딸임을 미리 알려주는 전조(前兆)와 같은 기능을 한다.²⁰⁾

디나에 대한 야곱의 무관심은 세겜이 디나를 욕보였을 때 디나의 친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하지만(7절), 정작 아버지인 야곱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모습(5절)을 통해서 유추해볼 수 있다. 세겜과 하몰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찾아와서 결혼협상을 할 때도 야곱은 침묵하며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이 대화의 주도권을 갖는다. 디나 역시 야곱이 아닌 그녀와 오빠들과 관련되어 ‘그들의 누이’(13, 14, 31절)로 불린다. 또한, 협상 중에는 ‘야곱의 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딸’(창 34:17)로도 불리는데, 디나의 문제는 야곱이 아니라 그녀의 오빠들의 문제인 것이다.

‘레아의 딸’이라는 표현 외에도 디나라는 등장인물이 가지고 있는 역할의 미미함과 내러티브상에서 관심 밖의 인물이라는 사실은 본문의 곳곳에

20) 디나는 ‘야곱의 딸’로도 불린다(창 34:3, 5, 7).

서 발견된다. 야곱의 열두 아들이 모두 그 이름의 의미가 본문에서 제시된 것과는 달리 디나는 창세기 30:21에서 출생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되는 것이 전부이다. 창세기 32장에 의하면 야곱이 밤에 압복강을 건널 때 디나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인물인 것처럼 그 이름이나 존재조차 언급되지 않는다(창 32:22-23).²¹⁾

3.2. 디나의 강간 여부와 본문의 해석

이어지는 2절은 『개역개정』의 번역을 옮기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고 묘사한다.²²⁾ 『공동』은 “디나를 보고 붙들어다가 겁탈하였다”로, 『표준』은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로 번역한다. 히브리어 본문에 ‘강간’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은 없지만,²³⁾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구절에 나오는 세겜의 행동과 관련되어 연속으로 사용된 동사들, 그중에서도 특히 **נָסַף**(눅다, 눅히다)와 **עָנָה**(낮추다, 괴롭히다, 수치스럽게 하다)의 조합이 강간을 의미한다고 보았다.²⁴⁾

반면에 베흐텔(Lyn M. Bechtel)이나 와이어트(N. Wyatt) 등의 학자들은 세겜의 행위를 나타내는 일련의 동사들의 결합이 반드시 강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한다. **נָסַף**의 일반적인 의미는 ‘눅다/눅히다’로 ‘강간’ 보다는 일반적인 ‘성관계’를 의미하며, **נָסַף**가 강간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압하다’라는 뜻의 **קָנַן**와 함께 나타날 때이다(신 22:25-27; 삼

21) 그 외에 창세기 46장의 야곱의 자손들의 목록에서도 비록 디나의 이름은 언급되고 있지만 디나에 관한 기록은 그 위치가 부자연스럽다. 출생의 순서를 고려해본다면 스블론에 관한 기록 바로 다음에 나와야 좀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더욱이 본문은 레아가 야곱에게 난 아들과 딸들이 디나를 합하여 모두 33명이라고 밝히고 있지만(창 46:15), 사실상 딸은 디나 하나이며 33명이라는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만약 디나까지 계수했다면 숫자는 도합 34명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디나는 창 34장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존재감이 없는, 마치 내러티브상에 존재하지 않다가 나타난 등장인물처럼 다루어진 다. James Kugel, *How to Read the Bible: A Guide to Scripture, Then and Now*, Kindle Edition (New York: Free Press, 2007), 4230, 4246 참고. (쪽번호는 Kindle Edition을 참조하였음. 이후에 본 단행본이 언급되는 경우도 동일함).

22) 대부분의 주석은 이 사건을 ‘강간’으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다음의 주석을 참조하라. Walter Brueggemann, *Genesis, Interpretation*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274-277; Gerhard von Rad, *Genesis*, 329; Claus Westermann, *Genesis 12-36: A Commentary*, John J. Scullion, trans. (Minneapolis: Fortress, 1995), 535-537; John Skinn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Genesis* (Edinburgh: T & T Clark, 1910), 417-419.

23) Lyn M. Bechtel, “What If Dinah Is Not Raped? (Genesis 34)”, *JSOT* 62 (1994), 20.

24)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8-50*, 354; Meir Sternberg, *The Poetics of Biblical Narrative*, 446.

하 13:11-14).²⁵⁾ שָׁכַב는 구약성서에서 일반적인 ‘성관계’를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강간’이라는 의미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단어들과의 상관관계와 사건의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 히브리어 동사 שָׁכַב는 명확하게 ‘강간’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עָנָה도 여성의 수치심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²⁶⁾ 구체적으로 ‘강간’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세겜이 디나를 강제로 강간했는지 여부는 본문상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강간하다’의 의미를 더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שָׁפַח이 아닌, 일반적인 ‘동침’을 나타내는 שָׁכַב가 사용된 점을 번역과정에서 고려한다면 שָׁכַב를 ‘강간하다’로 번역하는 대신에 다른 번역어를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²⁷⁾

이영미는 성관계를 나타내는 문맥에서는 שָׁכַב를 사실 묘사(정보성)라는 측면에서 일관성 있게 ‘동침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지만,²⁸⁾ 창세기 34:2의 경우 עָנָה 동사와의 결합을 고려하여 『쉬운 성경』의 번역인 “강제로 붙잡아 성관계를 맺다”나 “강제로 성추행을 하다”와 같은 번역을 제안한다.²⁹⁾ 영어성경 및 주석가들은 שָׁכַב를 ‘동침하다’(lay with her, ASV, RSV, JPS, KJV, NKJ 등)로 주로 번역하며, עָנָה 동사와 관련하여 “그녀를 모욕했다/가치를 떨어트렸다(debased her)”,³⁰⁾ “그녀를 부끄럽게 하다/수치스럽게 하다(shamed her)”³¹⁾와 같은 번역을 제시한다.

필자는 창세기 34:2의 שָׁכַב 동사와 עָנָה 동사의 조합을 “그녀와 동침하여 그녀를 수치스럽게 했다”로 번역하는 것이 전후 문맥 및 내러티브 전개상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³²⁾ עָנָה 동사가 정식으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맺은 부적절한 성관계를 묘사할 때 사용된 용례(신 21:14; 22:24, 29; 삼하 13:12)를 감안하면,³³⁾ 창세기 34장 본문에서는 폭력을 동반한 강간이 아니

25) Lyn M. Bechtel, “What If Dinah Is Not Raped? (Genesis 34)”, 24. 와이어트(N. Wyatt)도 2절이 강간이 아니라 성관계를 묘사한다고 보았다. N. Wyatt, “The Story of Dinah and Shechem”, *Ugarit Forschungen* 22 (1990), 435-436.

26) 이영미, “한글 성경의 성(性)관련 용어들의 번역 용례 연구”, 『성경원문연구』 28 (2011), 94.

27) 이영미, *Ibid.*, 94.

28) 이영미, *Ibid.*, 92.

29) 이영미, *Ibid.*, 94.

30) Robert Alter, *Genesis: Translation and Commentar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6), 189-190.

31) Gordon J. Wenham, *Genesis 16-50*, 311.

32) 또는, עָנָה의 기본적인 의미를 따라 세겜이 디나에게 ‘수치감을 주었다’ 정도의 번역도 무난하다. Lyn M. Bechtel, “Shame as a Sanction of Social Control in Biblical Israel: Judicial, Political, and Social Shaming”, *JSOT* 49 (1991), 28-29 참조.

33) Gordon J. Wenham, *Genesis 16-50*, 311;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8-50*, 352.

라 오히려 적합한 절차를 무시하고 맺은 성관계가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세겜이 디나를 ‘창녀’(נַחֲשֵׁת)처럼 다루었다고 시므온과 레위가 여긴 것도(31절)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본문에서 디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과연 강간인가에 대한 여지부터 학자들의 해석이 엇갈리지만, 창세기 34장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 다시 말해 세겜이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수단으로 강제적으로 디나와 성관계를 맺었느냐는 사실상 본문에서 부차적이며 관심 밖의 문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지는 창세기 34장 본문의 내용 전개는 폭력 및 강제성 여부보다는 이미 야곱의 딸이 가나안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고, 하물과 세겜이 야곱 집안과의 통혼(inter marriage)을 요구하는 상황에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디나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디나와 세겜의 부적절한 육체적 관계로 인해서 통혼의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야곱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언약적, 혈통적 순수성이 위협받게 된 상황을 전하고 있다. 세겜과 야곱의 딸 디나의 관계를 야곱 가정에 한정시키지 않고, 이 일을 내레이터는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다”(7절)로 확대시켜 설명한다. 이것은 또한 야곱의 아들들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³⁴⁾ 이러한 언급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창 24:3-4), 이삭과 리브가도 야곱이 예서처럼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는 것을 원치 않아 야곱을 뱃단아람으로 보낸 이야기(창 28:1-3)를 상기시킨다.

디나와 세겜의 관계가 강간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본문 상에서 세겜이 보여주는 태도도 어느 정도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3절에 나타난 디나에 대한 세겜의 태도는 디나에 대한 세겜의 감정이 단순히 욕정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는 아버지 하물에게 청해서 기꺼이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고자 한다. 내레이터는 세겜이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3절에서는 동사 **בָּחַר**로, 19절에서는 **פָּתַח**라는 동사로 디나에 대한 세겜의 마음을 표현한다. 세겜의 이러한 태도는 훗날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후에 돌변하여 다말을 냉대하는 태도와는 사뭇 대조적이다(삼하 13:15). 암논의 다말에 대한 태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회학 연구에 의하면 강간범은 피해

34) 웬함의 경우는 이것이 아들들의 견해인지, 내레이터의 견해인지, 아니면 양쪽 모두의 견해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양쪽 모두의 견해일 것으로 보는 스텐버그(Sternberg)의 주장을 일부 지지한다. Gordon J. Wenham, *Genesis 16-50*, 312. 본 연구도 스텐버그의 주장처럼 양쪽 모두의 견해일 것으로 본다.

자에게 사랑보다는 증오나 적개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³⁵⁾ 그러나 디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여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는 세겜의 모습은 독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세겜이란 등장인물을 전적으로 부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³⁶⁾

그러나 디나에 대한 세겜의 감정과는 달리 정작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초반에 등장했던 디나 본인의 의사나 감정에 대해 본문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문은 세겜이 디나를 강간했든, 두 사람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든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디나의 관점을 제거함으로써 창세기 34장이 세겜과 디나 두 사람의 개인적 차원의 성폭력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3.3. 본문의 암시,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다윗이 다말이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심히 노했던 모습과는 달리(삼하 13:21), 야곱은 세겜이 그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의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하였고(5절) 세겜의 아버지 하물이 야곱의 가족을 찾아온다.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던 야곱은 레아의 딸 디나가 당한 일에 대해 분노하기는커녕 마치 남의 집 딸에게 일어난 일인양 무관심한 것처럼 보인다. 칼빈은 야곱의 슬픔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야곱이 그의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자코 있었다고 설명하지만,³⁷⁾ 본문에서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는 근거는 전혀 없으며 야곱이 본문 상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감정은 오히려 아들들을 향한 분노(30절)일 뿐이다.³⁸⁾ 반면에 디나의 오빠들은 들에서 디나의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매우 격분한다(7절).

7절의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과 동침하여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였으니,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문의 내레이터는 이 사건에 대해 형제들이 어떻게

35) 참조, Lyn M. Bechtel, “What If Dinah Is Not Raped? (Genesis 34)”, 28-29.

36) 신명기 22:28-30에 의하면 남자가 처녀와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적절한 보상과 함께 결혼을 해야 한다. 쿠겔(James L. Kugel)은 이 본문을 제시하면서 세겜의 경우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제임스 쿠겔, 『모세오경』, 김은호, 임승환 공역 (서울: CLC, 2003), 286. 그러나 세겜이 디나를 ‘강간’했다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신명기 22:25에 의하면 ‘강간’을 했을 경우에, 강간범은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하물의 결혼 협상은 사실상 아들인 세겜의 사형을 모면하고자 하는 술수일 가능성도 있다. 홍경원, “해석의 윤리: 창세기 34장의 디나 이야기 읽기”, 21-22.

37) John Calvin, *Genesis*, 220.

38) 송병현, 『엑스포지멘터리 창세기』, 602.

말했거나 판단했는지를 직접적으로 인용해서 전달하지 않고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고 형제들의 관점을 암시하면서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스텐버그(Meir Sternberg)가 지적한 것처럼 이는 야곱의 아들들의 견해와 내레이터의 견해를 모두 드러낸다.³⁹⁾ 둘째, 디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야곱의 가족’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국가적 차원까지 확대하고 있다.⁴⁰⁾ 세겜이 디나에게 한 행동은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안에서 처음으로 민족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나타난다. 창세기 34장 본문은 야곱 가족에게 일어난 개인적 사건일 뿐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되기 이전이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언급되는 것은 본문의 정황과 시대를 초월하는 표현으로 가나안 사람들과의 통혼이 이스라엘의 이상(理想) 또는 규범을 깨트리는 것이며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임을 보여준다.⁴¹⁾ 7절에 언급된 ‘부끄러운 일’(הַבְּזוּת)은 구약에서 성적 범죄 등 윤리적 기준을 심각하게 범하는 행위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된다(신 22:21; 사 19:23; 20:6; 삼하 13:12; 렘 29:23).⁴²⁾ 즉, 디나에게 일어난 일은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심각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3.4. 디나 이야기의 주제는 ‘강간’이 아니라 ‘통혼’(intermarriage)이다

이어지는 8절부터의 이야기에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의 가족에게 디나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고 더 나아가 자신들과 통혼도 하고 세겜 땅에 머물면서 매대도 하고 기업을 얻으라고 권한다(8-10절). 이야기의 초점은 빠르게 상호결혼이라는 주제로 옮겨 간다. 만약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 자체가 이 이야기의 중심이었다면 본문에서 야곱의 아들들과 세겜의 백성들에게 통혼의 유익함을 언급하는 그 모든 하몰의 말들이(창 34:9-10, 20-23) 굳이 내러티브 안에 모두 포함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⁴³⁾ 야곱 가족과의 대화 이후에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성읍 사람들에게 야곱의 가족들과 교류하고 서로 혼인 관계를 맺게 되면 궁극적으로 야곱

39) Meir Sternberg, *The Poetics of Biblical Narrative*, 454; Gordon J. Wenham, *Genesis 16-50*, 312.

40) 최순진, “창 34-36장: 불완전한 인간, 완전하신 하나님”, 목회와 신학 편집부 엮음, 『창세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8), 374.

41) Claus Westermann, *Genesis 12-36*, 544.

42) Walter Brueggemann, *Genesis*, 276.

43) James L. Kugel, *How to Read the Bible*, 4149, 4165.

가족의 재산과 소유가 모두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경제적 이점을 내세우며(23절) 세겔과 디나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의 진정한 내막을 감춘다.⁴⁴⁾

하물은 통혼을 통한 경제적인 이점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야곱의 아들들은 통혼의 종교적인 장애물을 강조한다.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자신들의 ‘수치’(חִוּתָּהּ)이며(14절),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자신들과 같이 되어야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16절).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종교적 의식인 할례를 오용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의미는 온 열방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이와는 반대로 세겔 백성들과 연합하기 위한 의미에서 할례를 제시하고 있다.⁴⁵⁾ 야곱의 아들들이 세겔 족속들에게 이질적인 관습을 받아들이라고 제안했지만, 하물과 세겔은 기꺼이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받아들인데 본문은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라고 표현함으로써 디나에 대한 세겔의 애정이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했음을 알려준다(19절). 또한, 할례를 언급하고 있는 이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겔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게 된 유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어지는 사건의 전개를 통해 밝혀지듯이 야곱의 아들들, 적어도 그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는 할례 여부를 떠나 세겔과 디나가 혼인하는 것을 허락할 의도는 없었다. 물론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다 통혼에 대해 부정적이었는지, 아니면 그들 중 몇몇은 세겔과 디나의 결혼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있다. 만약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할례를 제안하고 세겔과 디나의 결혼에 대해서도 반대했다면 왜 단지 그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만이 성읍을 공격했겠는가. 디나와 가까운 오빠들인 레위와 시므온을 제외하면, 나머지 형제들은 시므온과 레위 두 명만이 세겔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디나를 세겔의 집에서 데려온 후에 야 비로소 하이에나처럼 시체가 가득한 성읍으로 찾아가서 노략질에 가담했을 뿐이다.

3.5. 창세기 34장 사건의 윤리성 문제

44) 사실상 세겔이 디나를 사랑해서 아내로 맞이하려고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막을 밝히지 않고 오직 야곱 집안과의 교류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만을 강조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성읍 사람들을 속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45) 송병현, 『엑스포지멘터리 창세기』, 604.

하물과 세겜은 야곱의 가축과 재산이 모두 자신들의 소유가 되고 그들이 자신들과 함께 거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23절), 아이러니하게도 상황은 그들이 예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들의 소유가 오히려 야곱 가족의 소유가 되고 말았고, 더 나아가 세겜 한 사람이 디나와 동침한 대가로 세겜은 물론이고 성읍 전체의 사람들이 처참하게 살해되고 말았다.

야곱의 아들들의 복수는 종교적, 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무엇보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이방인을 살해하기 위한 계략의 일부로 사용하였다. 또한, 이들의 복수는 필요 이상의 잔인함을 보여준다.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과 심지어 어린 자녀들까지 포로로 사로잡았다. 이러한 행위를 지나쳤다고 판단했는지 70인역에서는 세겜 성읍의 ‘자녀들’을 이러한 대량 학살과 약탈이라는 장면에서 제외시켰다.⁴⁶⁾ 월키(B. Waltke)는 야곱의 아들들의 노략질을 ‘동해복수법’(lex talionis)의 차원에서 설명하지만,⁴⁷⁾ 야곱의 아들들의 복수의 수준은 동해복수법으로 이해하기에는 이미 그 정도를 크게 넘어섰다. 27절은 야곱의 아들들의 복수의 이유를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אֲשֶׁר טָמְאוּ אֶת־נָחֳמֵינוּ)이라고 설명한다. 사실상 세겜 홀로 디나와 동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이 문제를 세겜 혼자가 아닌 ‘그들’이 디나를 더럽혔다(또는, ‘부정케 했다’)고 강조하면서 세겜 사람들 전체와 연관시키면서 또다시 집단적, 민족적 차원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창세기 34장은 디나와 세겜과의 관계를 세 차례에 걸쳐 ‘더럽혔다/부정케 했다’(טָמְאוּ, 원형 טָמַא)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묘사하는데(5, 13, 27절), 이 단어는 레위기에서 주로 제의적인 관점에서 ‘부정함’(unclean)을 의미하며 디나가 단순히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 제의적인 관점에서도 부정해졌음을 암시한다. 브루거만(Walter Brueggemann)은 창세기 34장 본문이 טָמַא라는 용어의 반복을 통해 성적인 문제를 제의적인 정결로 연관시키고 있고, 디나가 제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지적한다.⁴⁸⁾ 『개역개정』은 טָמַא를 ‘더럽혔다’로, 『공동』은 ‘욕을 보았다’로, 『표준』은 ‘더럽혔다’(5절)와 ‘욕보였다’(13절, 27절)로 혼용해서 번역하지만, 이 단어가 창세기 34장에서 3번 반복되었고 제의적인 정결을 가리키는 핵심적인 어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혼용해서 번역하는 것 보다는 일관성 있게 ‘부정케 했다’로 옮기는 것이 원문의 의도에 좀 더 부합할 것이다.

디나는 오빠들에게 이끌려 집으로 돌아오지만 본문은 돌아온 디나가 오

46) 홍경원, “해석의 윤리: 창세기 34장의 디나 이야기 읽기”, 25.

47) Bruce K. Waltke, *Genesis*, 467

48) Walter Brueggemann, *Genesis*, 275-276.

빠들이 자신의 남편이 될 수도 있었던 세겜을 죽인 것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 또다시 침묵한다. 고마워했는지, 아니면 성사될 수 있었던 혼인을 망친 오빠들을 원망했는지 알 수 없다. 일단 남자와 성관계를 한 이상 디나는 이 사실을 숨기고 결혼할 수 없기에(신 22:13-21)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야 할 것이다. 시므온과 레위의 잔인한 복수는 결코 디나 개인으로서는 반가운 일만도 아니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시므온과 레위가 자신들과 집안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한답시고 하나뿐인 동생을 희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⁹⁾

창세기 34장의 이야기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인 시므온과 레위간의 격론으로 마무리된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의 대량 학살 행위나, 할례 의식을 오용한 것이나, 또는 세겜 사람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그들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한다(30절). 세겜이 디나와 동침한 것이나, 가나안 사람들과의 상호결혼에 대해 야곱에게서 특별히 고민하는 모습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⁵⁰⁾ 자신의 체면과 안위에만 신경을 쓰면서 일을 대충 매듭지으려는 야곱에게 시므온과 레위는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라며 반문한다(31절).⁵¹⁾ 시므온과 레위의 마지막 수사적 질문은 창세기 34장의 핵심을 담고 있다. 질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 말은 야곱에 대한 반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질문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강한 부정일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본문에 암시되어 있었다. 창세기 34장의 사건은 결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민족의 시조로서 적절하게 처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본문은 시므온과 레위의 입을 통한 마지막 질문을 통해

49) 송병현, 『엑스포지멘터리 창세기』, 607.

50) Gordon J. Wenham, *Genesis 16-50*, 316-317. 최순진과 송병현도 야곱이 디나와 세겜과의 결혼에 대해 큰 거부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최순진은 만약 세겜이 디나를 부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면 야곱이 세겜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본다. 송병현도 야곱이 진정으로 세겜 사람들과 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석한다. 최순진, “창 34장~36장: 불완전한 인간, 완전하신 하나님”, 377; 송병현, 『엑스포지멘터리 창세기』, 609.

51)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를 ‘아버지의 딸’이나 ‘당신(야곱)의 딸’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누이’라고 표현한 것은 디나와의 친밀감과 함께 일을 대충 매듭지으려고 하는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보여준다. “창녀 같이 대우한다”는 것은 본문에서 기본적으로는 세겜이 디나를 대한 태도를 언급하는 것이지만, 웬함은 디나가 강간당한 것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마치 포주처럼 기꺼이 (하물과 세겜으로부터) 예물을 받으려고 하는 야곱의 태도까지 간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즉, 시므온과 레위의 마지막 말이 세겜과 야곱 두 사람 모두를 비판하도록 의도되었다는 것이다. Gordon J. Wenham, *Genesis 16-50*, 317.

간접적으로 비판한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겔 사람들을 살육했던 행위 자체는 정당화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과 레위의 질문은 본문의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다.

4. 디나 이야기의 함의(含意)

디나에게 일어난 비극적 사건을 통해 창세기 34장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디나 이야기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디나에게 일어난 사건은 야곱이 서원을 지켜서 벧엘로 가지 않고 세겔에 정착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며 서원의 이행에 관한 교훈을 주는 본문일까? 또는 낮선 지역에서 디나의 조심스럽지 못했던 태도나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던 시므온과 레위와 관련하여 도덕적 교훈을 주는 것이 목적인가? 동일한 이야기도 독자의 관심사에 따라 어느 정도 다양한 관점에서 읽힐 수 있겠지만, 창세기 34장은 본문에 내재된 ‘원인론적 요소들’(Etiological elements)로 인해 야곱 가족에게 있었던 하나의 비극적 사건의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진 본문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 민족의 차원에서 창세기 34장의 사건이 후대의 상황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디나 이야기(창 34장)는 창세기의 다른 본문처럼 ‘유래(또는 기원)를 설명하는 내용’(원인론, Etiology)을 포함하고 있다.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의 시조인 시므온과 레위의 무용담을 담고 있으며,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서 종교적으로 중요한 도시였던 세겔이라는 성읍의 기원을 전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창세기 34장은 이방인들과의 상호결혼(intermarriage)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거부감과 배타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본문으로서 훗날 가나안 사람들과의 통혼이나 조약을 맺는 것을 금지하는 율법(출 34:16; 신 7:1-4 등 참조)에 대한 내러티브적 근거를 제공한다.

4.1.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의 기원

창세기 34장은 창세기 49장에 등장하는 시므온, 레위에 대한 야곱의 축복의 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그의 아들들을 향한 축복의 말을 전하면서 아들들이 일으켰던 문제나 그들의 특징 또는 미래에 대해 말한다. 시므온과 레위에게 주어진 말들은 다음과 같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들이요, 그들의 칼들은 폭력의 도구들이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들어가지 말며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함께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화가 날 때 사람을 죽이고 그들은 기본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기 때문이다.
 그들의 분노가 매우 강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들의 격노가 참으로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야곱 중에 그들을 나눌 것이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들을 흠을 것이다 (창 49:5-7 필자의 사역)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야곱의 말들은 사실상 축복이라기보다 비난과 저주에 가까우며 창세기 34장의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곱의 말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세부적인 묘사에 있어서 창세기 34장의 사건과는 적잖은 차이점도 발견된다. 야곱의 말에는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들을 속이기 위해 할례를 오용한 것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세겜이나 하몰 등 세겜이라는 성읍과 연관시킬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다. 창세기 34장에서 시므온과 레위는 하몰과 세겜을 포함하여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였지만, 야곱의 말에서는 단지 ‘한 사람’을 죽인 것으로만 언급된다. 이런 이유로 창세기 49장에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야곱의 말 가운데 언급된 사건은 창세기 34장이 아닌 다른 전승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구약에서 예언이나 신탁이 가진 모호성과 자구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야곱의 언급은 창세기 34장의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여기서 ‘소’는 하몰이나 세겜 같은 가나안 족속들의 지도자를 가리키거나 또는 야곱을 가리킨다는 견해 등이 제시되었다.⁵²⁾ 시므온과 레위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흠어질 것이라는 예언적 요소는 후대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의 영토에 흡수되었고(수 19:1, 9), 레위 지파도 분깃도 없이 몇몇 떨어진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들만 받으면서(수 14:4; 21장) 다른 지파들 사이에서 흠어지게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창세기 34장의 이야기는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시조가 되는 레위와 시므온에 대한 내러티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4.2. 세겜 성읍과 지도자에 대한 기원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에 대한 기원 외에도 창세기 34장은 세겜이라는

52) Gordon J. Wenham, *Genesis 16-50*, 474-475.

성읍에 대한 내력을 소개한다. 창세기 34장에 의하면 세겜 성읍은 시므온과 레위를 위시하여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전멸된다. 그 이후에 세겜은 여호수아와 사사기에서 다시 중요한 성읍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후대에 등장하는 성경의 기록들은 세겜에서 일어난 잔혹했던 사건에 대해 마치 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첫 제단을 쌓은 곳이며, 북 이스라엘의 처음 수도였던 세겜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지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다. 여호수아서에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 후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지만(수 24장), 여호수아서에는 정작 세겜이 언제 정복되었는지 정복에 대한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창세기 34장의 사건에서 시므온과 레위에 의해 죽게 되지만, 동일한 이름을 가진 하몰이 흥미롭게도 사사기 9장에서 세겜이라는 동일한 성읍의 지배자로, 또 세겜이라는 아들의 아버지로 다시 등장한다. 하몰과 세겜이 다른 시대에 동일한 성읍에서 같은 이름을 가진 지도자로서 다시 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전혀 다른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이름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창세기와 사사기에 동시에 등장하는 세겜과 하몰은 창세기 34장의 본문이 사사기 시대와 어떤 형태로든 연관이 있으며 이 시기 동안 디나 이야기의 일부가 개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⁵³⁾

창세기 34장의 세겜과의 상관관계를 다른 본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요셉에게 세겜 땅을 더 주었다고 하면서,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창 48:22)이라고 말한다. 세겜 땅에 대한 야곱의 언급은 창세기 34장의 사건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역시도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사실상 야곱은 디나 이야기(창 34장)에서 사건을 관망하였고, 세겜 사람들을 약탈한 것에 대해서 아들들에게 화를 내고 비난하였지만 지금은 그 정복에 대한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 디나 이야기에서는 하몰과 세겜 지역의 사람들을 히위 족속이라고 불렀지만(창 34:2), 야곱 자신은 그 땅의 사람들을 아모리 족속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창세기 34장의 본문을 세겜과 관련된 유래를 설명하는 원인론적 내러티브(Etiological narrative)로 평가할 때 몇 가지 난제를 남기지만, 여전히 창세기 34장이 세겜에 대한 중요한 원인론적 요소를 포함

53) James L. Kugel, *How to Read the Bible*, 4215.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4.3. 이방인과의 상호결혼을 금지하는 율법의 내러티브 근거

창세기 34장의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비추어 보면 민수기 31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디안 족속들에게 원수를 갚는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미디안을 쳐서 남자들은 다 죽였지만, 미디안의 부녀들과 자녀들은 사로잡았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탈취한 후에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살랐다. 신명기 율법에도 이와 유사한 정책이 등장한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신 20:10-14, 『개역개정』)

창세기 34장에서 시므온과 레위 및 그의 형제들이 한 행동은 마치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신명기 20:10-14에 나타난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보인다.⁵⁴⁾ 위에서 언급한 본문 외에도 창세기 34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는 것이나 조약을 맺는 것을 금지하는 이후에 주어지는 율법(예를 들어, 출 34:16; 신 7:1-4 등)의 유래에 대한 내러티브상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처럼 창세기 34장은 디나와 야곱의 가족이라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분명한 공동체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⁵⁵⁾ 하물이 야곱의 가족을 대하는 방식도 야곱 식구들 한 가족만이 아니라 다분히 하나의 민족을 대하는 방식이다. “우리과 서로 통혼합시다. 당신들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을 당신들을 위해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 사십시오. 땅이 당신들 앞에 있으니 정착하셔서 장사도 하고 재산도 얻으십시오.”(창 34:9-10 필자의 사역) 야곱에게 딸은 오직 디나 밖에 없었

54) James L. Kugel, *How to Read the Bible*, 4331.

55) Walter Brueggemann, *Genesis*, 277-279.

지만 하물은 ‘딸들’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한다. 또한, 하물은 자신의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이 땅이 그들에게 충분히 넓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그들의 딸들을 취하고,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줄 것입니다.”(창 34:21) 라고 말한다. 만약 야곱 한 가족만을 수용하는 문제라면 땅의 면적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창세기 34장은 한 가족이 아니라 결국 후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이 있다.

궁극적으로 창세기 34장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와의 대립적 관계를 다룬다. 야곱의 가족 안에서도 디나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두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 사이에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이방인과의 통혼에 대해 가치관이 대립되는 집단들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본문에서 디나와 야곱이 세겜 사람들과 같은 가나안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 개방적 집단을 대표하는 반면에, 시므온과 레위를 위시한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혈통적 순수성을 위해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부정한 외부인들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폐쇄적, 적대적인 집단을 대표한다.⁵⁶⁾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의 딸을 이삭의 아내로 원치 않았고(창 24:3-4), 이삭과 리브가도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야곱의 아내로 원치 않았던 것처럼(창 28:1-2) 창세기에는 이방인과의 족외혼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있다.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명시된 율법에서도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거나 조약 맺는 것을 금지할 뿐 아니라 그들을 멸망시키라고 명령한다. 디나 이야기는 그러한 율법의 유래를 보여주는 내러티브를 제공한다.

5. 나가는 글

지금까지 창세기 34장 해석의 중요한 쟁점을 소개한 후 본문에 대한 기존의 번역과 해석을 재고하면서 디나 이야기를 원인론(Etiology)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창세기 34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디나라는 한 개인의 불행한 경험을 전달하거나, 또는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는 이야기를 통해 도덕적, 윤리적 교훈을 주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다. 창세기 34장은 일차적으로는 디나 개인과 야곱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적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이는 결코 야곱 가족만의

56) Lyn M. Bechtel, “What If Dinah Is Not Raped? (Genesis 34)”, 36; Bernd Jörg Diebner, “Genesis 34 und Dinas Rolle bei der Definition ‘Israels’”, *Dielheimer Blätter zum Alten Testament* 19 (1984), 59-75.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세겜에서 야곱이 겪게 되는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다.⁵⁷⁾ 이 사건에는 하몰과 세겜이 대표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야곱의 아들들이 대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립과 함께, 더 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외부인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가진 두 집단, 곧 개방적 집단과 폐쇄적 집단 간의 대립이 있다.⁵⁸⁾

이방인과의 교류에 있어서 핵심은 이들과의 결혼 문제인데, 창세기 34장 본문은 ‘부끄러운 일’(הַזָּנוּת, 7절)과 ‘더럽혔다/부정케 했다’(אָנָּטָה, 5, 13, 27절)라는 표현을 통해 가나안 족속과의 접촉이 이스라엘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을 강조한다.⁵⁹⁾ 이는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창세기 전체 맥락 속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창 24:3-4; 28:1-2).⁶⁰⁾ 이후에 주어지는 율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는 것이나 조약을 맺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데(출 34:16; 신 7:1-4; 20:10-14) 디나 이야기는 이러한 율법의 유래에 대한 내러티브적 근거를 제공한다.

창세기 34장은 독자에게 과연 이스라엘이 세겜 족속과의 통혼을 통해 그들과 ‘한 민족’(16, 22절)이 되고, 함께 거주하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10절). 그러나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셨고(창 12:7; 13:15; 15:7, 18; 17:8)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이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디나 이야기는 디나의 강간과 이로 인해 시므온과 레위가 저질렀던 끔찍한 대량학살 사건을 통해 가나안 족속과의 접촉이 가져왔던 한 가족의 비극을 보여주며 다른 민족,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

<주제어> (Keywords)

창세기 34장, 디나, 상호통혼, 텍스트 모호성, 원인론.

Genesis 34, Dinah, Intermarriage, Textual Ambiguity, Etiology.

(투고 일자: 2015년 7월 31일, 심사 일자: 2015년 8월 28일, 게재 확정 일자: 2015년 9월 20일)

57) Walter Brueggemann, *Genesis*, 279-280.

58) Lyn M. Bechtel, “What If Dinah Is Not Raped? (Genesis 34)”, 36.

59) Allen P. Ross, *Creation & Blessing* (Grand Rapids: Baker Book, 1988), 569.

60) Laurence A. Turner, *Genesis*, 147.

<참고문헌> (References)

- 로스, Allen P., 『창세기』, 강성렬 역, 서울: 두란노, 1988.
- 송병현, 『엑스포지멘터리 창세기』,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0.
- 이영미, “한글 성경의 성(性)관련 용어들의 번역 용례 연구”, 『성경원문연구』 28 (2011), 86-108.
- 천사무엘, 『창세기』, 성서주석 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최순진, “창 34~36장: 불완전한 인간, 완전하신 하나님”, 목회와 신학 편집부 엮음, 『창세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8, 371-383.
- 쿠걸, James, 『모세오경』, 김은호, 임승환 공역, 서울: CLC, 2003.
- 홍경원, “해석의 윤리: 창세기 34장의 디나 이야기 읽기”, 『神學思想』 142 (2008), 7-31.
- Alter, Robert, *Genesis: Translation and Commentar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6.
- Bechtel, Lyn M., “What If Dinah Is Not Raped? (Genesis 34)”, *JSOT* 62 (1994), 19-36.
- Bechtel, Lyn M., “Shame as a Sanction of Social Control in Biblical Israel: Judicial, Political, and Social Shaming”, *JSOT* 49 (1991), 47-76.
- Brueggemann, Walter, *Genesis, Interpretation*,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 Calvin, John, *Genesis*, John King, trans., Carlisle: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5.
- Cotter, David M., *Genesis*,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3.
- Diebner, Bernd Jörg, “Genesis 34 und Dinas Rolle bei der Definition ‘Israels’”, *Dielheimer Blätter zum Alten Testament* 19 (1984), 59-75.
- Hamilton, Victor P.,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8-50*,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5.
- Kass, Leon R., “Regarding Daughters and Sisters: The Rape of Dinah”, *Commentary* 93 (1992), 29-38.
- Kugel, James, *How to Read the Bible: A Guide to Scripture, Then and Now*, Kindle Edition, New York: Free Press, 2007.
- Kugel, James, “The Story of Dinah in the Testament of Levi”, *Harvard Theological Review* 85 (1992), 1-34.
- Neusner, Jacob, *Genesis Rabbah: The Judaic Commentary to the Book of Genesis*, vol. 3, Atlanta: Scholar’s Press, 1985.
- Neusner, Jacob, *Confronting Creation: How Judaism Reads Genesis: An Anthology of Genesis Rabbah*,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91.
- Rad, Gerhard von, *Genesis*, John H. Marks, trans., London: SCM Press, 1961.
- Sarna, Nahum M., *Genesi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Skinner, John,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Genesis*, Edinburgh: T & T Clark, 1910.

Sternberg, Meir, *The Poetics of Biblical Narrative: Ideological Literature and the Drama of Reading*,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5.

Turner, Laurence A., *Genesi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Waltke, Bruce K., *Genesis: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1.

Wenham, Gordon J., *Genesis 16-50*, WBC 2, Dallas: Word, 1994.

Westermann, Claus, *Genesis 12-36: A Commentary*, John J. Scullion, trans., Minneapolis: Fortress, 1995.

Wyatt, N., "The Story of Dinah and Shechem", *Ugarit Forschungen* 22 (1990), 433-458.

<Abstract>

Reading the Story of Dinah from an Etiological Perspective

Il-Seung Chung
(Asia Life University)

Textual ambiguities within the story of Dinah in Genesis 34 have been making diverse but contradictory interpretations with regard to characters such as Dinah, Simeon, Levi, Shechem and Jacob. Various interpretations exist - such as positive evaluation on the deeds of Simeon and Levi; negative comments on Dinah who left the house of her father; and reading the Dinah story from Dinah's perspective. The present study traces the implications of the Dinah story by re-examining the translations and interpretations of ambiguous texts, and focusing on etiological elements of the story which become crucial elements for the interpretation of Genesis 34. The main theme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Dinah story is intermarriage, not rape. The story of Dinah is not written merely for the purpose of narrating a tragic incident that occurred in Jacob's family. It rather has communal significance for Israel. As with the story of Simeon and Levi who become the tribal fathers, Genesis 34 shows the origin of the city of Shechem, and provides narrative evidence of the law which forbids the Israelites from intermarrying and making a treaty with the Canaanites (e.g. Exo 34:16; Deu 7:1-4; 20:10-14).